

- 한·일 양국의 독도, 동해 영토 분쟁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진단 모색을 위한 -

# 한·일 양국의 관점에서 본 울릉도·독도 심포지움



## 東海 獨島

2011년 12월 2일(금) 13:00-17:00

- ▶ 장 소 : 대구한의대학교 학술정보관 619호
- ▶ 주최/주관 : 대구한의대학교 안용복연구소
- ▶ 후원 :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상북도 독도연구기관통합협의체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관점

박병섭(일본 竹島=獨島研究Net 대표)

한마디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라 할지라도 이는 논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또한 같은 논자라 할지라도 주장은 때로는 변화한다. 특히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의 주장은 자주 변화한다. 예를 들면 1877년에 일본 태정관이 독도를 일본 영토 밖으로 지령한 것에 대해서는 4번이나 주장을 바꾸었다.<sup>114)</sup> 시모조는 경우는 극심한 예이지만, 주장의 변화는 일본 외무성에서도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흔히 한국에서 ‘일본측 주장’이란 애매한 말을 쓰는데, 이는 누가 언제 주장했는지 잘 분석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일본의 주장이 다양함을 보고, 다음에 한국 연구자들이 외무성의 주장에 대해 충분한 반론을 못하고 있는 세 가지 점을 다룬다. 끝으로 일본 주장에 대한 대응 방식을 생각한다.

### 1. 일본 주장의 다양성과 변화

#### 1) 고유영토론

일본의 주장은 다양하다. 일본정부는 ‘다케시마(竹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시마네현은 홈페이지 혹은 간행물에서 ‘고유영토’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이는 (1)고유영토라는 말은 개념이 애매하다, (2)일본은 독도를 무주지 선점의 명목으로 편입했으니 고유영토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인 것 같다. 단지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 회장 시모조는 예전에는

114) 박병섭,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의 논설을 분석한다」, 『독도연구』 4호, 2008, p.89(일어), p.119(한글).

고유영토설을 부정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 주장하기 시작했다.<sup>115)</sup> 그러나 이는 시모조 개인의 견해이며, 다케시마문제 연구회는 통일된 견해를 가지지 않는다. 시마네현에서는 독도문제 연구의 선구자인 다무라 세이자부로(田村清三郎)가 고유영토의 말을 쓰지 않았으니, 그 전통을 이어받았는지도 모른다.

또한, 외무성에서도 한국과의 독도영유권 논쟁에서 오랫동안 고유영토의 말을 쓰지 않았다. 일본정부가 고유영토설을 쓰게 된 것은 1956년에 시게미쓰 마모루(重光葵) 외상이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발언한 것이 계기가 됐다.<sup>116)</sup> 이를 이어받아 외무성은 1962년에 한국에 대한 ‘일본정부 견해4<sup>117)</sup>’에서 처음으로 고유영토란 말을 사용했던 것 같다.

이 ‘고유영토’의 입장에 선 외무성은 일본이 1905년에 내각회의에서 독도의 영토 편입을 결정한 일을 ‘영유 의사의 재확인’이라고 강변하고, 내각회의가 ‘무주지 선점’을 명목으로 편입한 것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 또 1877년에 태정관이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다”고 지령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일본정부 결정은 ‘고유영토’의 주장과 모순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 2) 『인슈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

외무성은 에도(江戸)시대에 독도가 일본영토였던 근거로 『인슈시청합기』를 인용해,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일본 서북부의 한계”라고 주장했다.<sup>118)</sup> 이는 다가와 고조(田川孝三)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인데, 한국이 이를 ‘한국정부견해3’에서 비판하자 일본은 반론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정부가 일본

의 서북부 한계는 죽도와 송도가 아니라 오키국(隱岐国)이라는 한국정부의 주장을 묵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슈시청합기』의 해석에 대한 일본 연구자의 견해인데 가와카미 겐조, 다가와 고조는 이에 대해 언급이 없고,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 오니시 도시테루(大西俊輝) 등이 일본정부의 견해를 부인했다. 또한, 처음에는 다가와의 견해를 지지했던 나이토 세이쥬(内藤正中)는 이케우치의 면밀한 연구의 영향을 받아 부정론으로 변했다. 한편, 이케우치의 연구에 대해 시모조는 “다케시마문제연구회가 조사연구를 행하는데 장애가 됐다<sup>119)</sup>”고 비난해 반론을 주장하고 있으나 설득력을 가지지 않다.

## 3) 송도(松島)도해면허

일본외무성은 ‘일본정부견해4’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의 근거로 “1656년 혹은 그 이전에 오야 가(大谷家)는 다케시마(독도)도 막부(幕府)에서 배령(拜領)해 어업을 포함해 이를 독점적으로 경영하는 면허를 얻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가와카미의 ‘송도도해면허’ 설을 인용한 것인데, 이 설을 호리 가즈오(堀和生)는 지지했다. 다무라는 면허에 대해 언급이 없으며, 쓰카모토, 이케우치는 면허를 부인했다. 최근의 외무성은 송도도해면허가 중요한 논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언급하지 않게 됐다. 송도도해면허설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 2. 17세기의 독도영유권

한국의 연구자가 일본외무성에 대해 충분한 반론을 못하고 있는 예로 먼저 17세기에 있어서의 독도영유권 문제를 들 수 있다. 외무성은 팸플릿 「다케시마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에서 “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 도항을 금

115) 박병섭,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의 논설을 분석한다(2)」, 『독도연구』 7호, 2009, p.112(일), p.146(한글).

116) 『衆議院會議録10号』 1956.12.3.

117) 「竹島に関する1959年1月7日付韓国政府の見解に対する日本政府の見解」 1962.7.13.

118) 「竹島に関する1954年9月25日付大韓民国政府の見解に対する日本国政府の見解」 1956.9.20.

119) 下條正男, 「最終報告にあたって」,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竹島問題研究会, 2007, p.4.

지했습니다만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습니까."고 적었다. 이 주장은 또 하나의 주장 "한국이 옛날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와 함께 일본정부의 '다케시마 고유영토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1) 돗토리번(鳥取藩)이 죽도·송도의 영유를 부인했다, (2) 송도는 죽도의 부속 섬이다 등등 주장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반론은 충분하지 않다. 막부가 송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이용해 「일본 정부견해4」는 송도가 그 후로 일본 땅으로 생각된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덴포(天保) 8(1837)년에 하마다(浜田)의 조운선 업자 아이즈야 하치에몽(会津屋八右衛門)이 밀무역을 하다가 발각돼 사형 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 밀무역은 죽도(지금의 울릉도)와의 사이에서 행한 것으로 돼있는데 이 사건의 판결문 안에 하시모토 삼베(橋本三兵衛)가 아이즈야 하치에몽에게 "가까운 송도(지금의 다케시마) 도항 명목으로 죽도(지금의 울릉도)로 도항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는 죽도(지금의 울릉도) 도항은 금지됐지만 송도(지금의 다케시마) 도항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사건 즉 덴포 '죽도도해일건(竹島渡海一件)'에 대해 보충한다면, 1836년에 오사카마치봉행소(大阪町奉行所)가 하치에몽을 잡아 조사한 결과, 밀무역에는 하마다번이 깊이 관계해 있었으니 사건을 막부의 최고 사법기관인 평정소(評定所)에서 다루기로 하고, 하치에몽을 에도 지사봉행소(寺社奉行所)로 7월에 넘겼다. 평정소는 일본 각지의 관계자를 조사한 후, 하마다번 중신을 비롯해 관계자를 엄벌에 처했던 것이다.

외무성은 하마다번의 중신 오카다 요리모(岡田頼母)의 가신인 하시모토 등이 송도 도항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을 확대 해석해 막부도 같은 생각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가와카미, 다무라 등의 주장에 근거하는데,

최근에는 쓰카모토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케우치, 나이토 등은 송도 도해도 동시에 금지됐다고 주장해 외무성 견해를 부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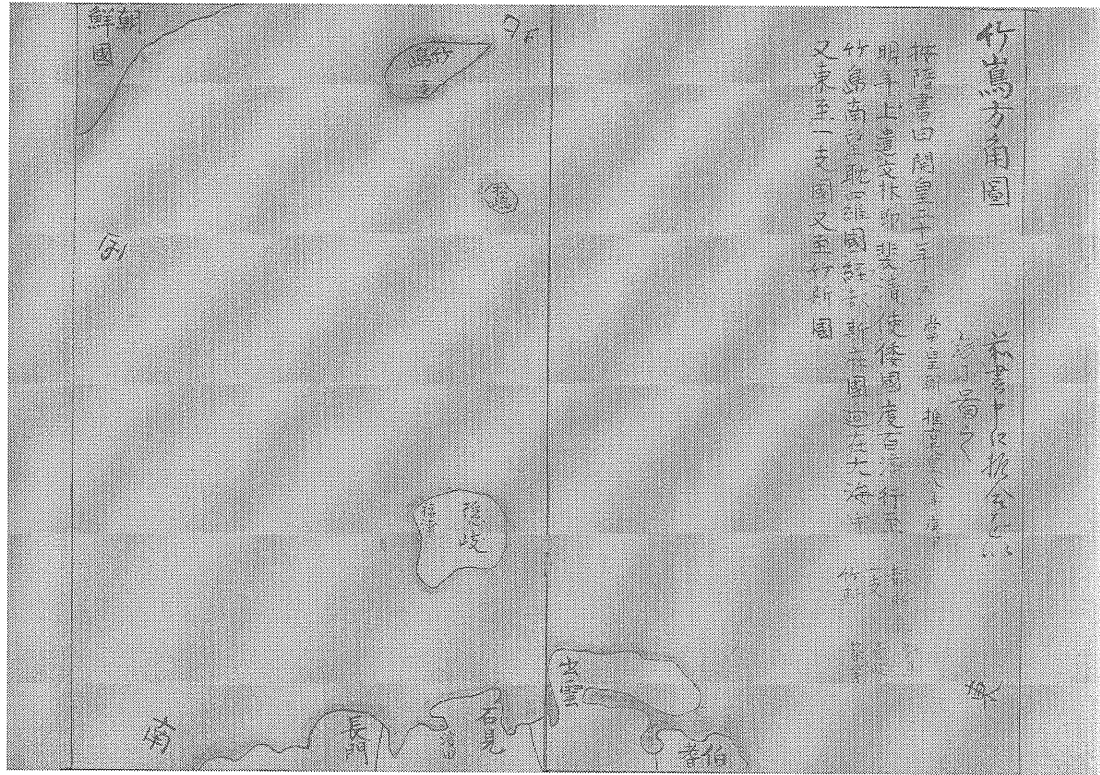
한편, 이케우치, 이훈이 발굴한 사료 '대마도종가(宗家)문서<sup>120)</sup>'에 따르면 막부는 1836년 7월 17일에 쓰시마번을 불러 죽도·송도에 관한 문의를 했다. 즉 "두 섬은 모두 조선의 울릉도인가? 혹은 죽도는 울릉도이며 송도는 조선 땅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쓰시마번은 (1) 죽도는 강원도의 울릉도이며, (2) 울릉도쟁계 때에 쓰시마번이 막부의 질문에게 "죽도 근처에 송도라는 섬이 있고, 그 곳에서도 어로를 했다는 아래 것들의 풍설이 있다."고 대답한 것, (3) 송도도 죽도와 같이 일본인의 출어가 금지됐다고 생각되지만 명백하지 않는다 등 회답했다. 이에 대해 이케우치는 "이런 쓰시마번의 인식이 막부의 의사에 반영돼 세상에 유포하게 됐을 것이다."<sup>121)</sup>고 주장했다.

필자는 막부의 의사의 반영을 사건 기록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치에몽의 진술 기록 『竹島渡海一件記<sup>122)</sup>』 속에 지도 「죽도방각도(竹島方角図)」(도판 1)가 첨부됐는데, 이 지도에서 죽도·송도가 조선 본토와 같이 붉은 색으로 색칠돼 있다. 이 지도를 보면 죽도·송도가 조선 영토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 지도는 『竹島渡海一件記』에 따르면 하치에몽의 "진술과 대조해 시험적으로 지도를 그렸다."고 하니, 하치에몽을 문초한 막부 기관이 작성한 것이다. 그 기관이란 그를 처음에 조사한 오사카마치봉행소로 생각된다.

120) 「対馬島宗家文書」, 한국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고문서 목록 #4103.

121) 池内敏, 「17-19世紀 鬱陵島海域の生業と交流」, 『歴史学研究』 756호, p.30.

122) 도쿄대학 총합도서관 소장. 번각문은 森須和男, 『八右衛門とその時代』 浜田市教育委員会, 2002.



< 오사카마치奉行所(大阪町奉行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죽도방각도」. 죽도·송도, 조선 본토는 붉은 색, 오키 및 일본 본토는 노란 색 >

이 「죽도방각도」를 수정한 것이 『朝鮮竹島渡航始末記<sup>123)</sup>』 부속지도(도판 2)다. 이 책자는 사건을 막부의 중신 미즈노 다다쿠니(水野忠邦)가 담당한 후의 기록이다. 따라서 이 자료는 막부의 평정소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자의 부속 지도를 보면 도판2와 같이 일본 본토, 오키, 쓰시마는 무색이지만 죽도·송도, 조선 본토 등은 붉은 색으로 색칠돼 있다. 이 지도도 송도를 일본 땅으로 본 하마다번의 인식을 부인했다. 이들 두 장의 막부 기관이 작성한 지도에서 막부가 죽도·송도를 조선 땅으로 인식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의무성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 막부의 평정소(評定所)가 작성했다고 생각되는 지도. 죽도·송도, 조선 본토는 붉은 색, 오키와 일본 본토는 무색 >

123) 島根縣浜田市立図書館 소장. 번각문은 『新修島根県史』史料編(近世下) 1967, 328-335.

텐포 죽도도해일건을 마무리한 에도막부는 전국적인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려 온 포구에 방문 게시판을 세웠다. 그 방문은 겐로쿠기(元祿期) 이후는 죽도가 도해금지 지역의 섬임을 알리는 것과 함께 조운선 등은 해상에서 다른 나라의 배를 만나지 않도록 항로에 조심하고 먼 바다로 나아가지 않도록 명하는 것이었다. 이 방문에 송도 이름은 없지만, 이에 대해 나이토는 "멀리 가는 배로 밖에 갈 수 없는 송도를 도해금지령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sup>124)</sup>"고 주장했다. 이는 막부의 송도에 대한 인식을 생각하면 타당한 견해이다.

### 3. 석도와 독도의 명칭 문제

한국의 연구자가 외무성에 대해 충분한 반론을 못하고 있는 두 번째는 1900년 칙령 41호에 기재된 '석도'의 명칭 문제이다. 이에 대해 외무성은 「10 포인트」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석도'가 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라면, 왜 칙령에서 '독도'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 '독도'라는 호칭은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는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의문은 독도영유권 문제의 핵심을 찌르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은 독도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 문제의 종대성을 시모조 마사오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만약 이 석도가 한국 측 주장대로 다케시마라면, 다케시마가 시마네현에 편입된 1905년에 앞서 다케시마는 한국 땅으로 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일본정부에 의한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은 한국 측 주장대로 위법행위가 된다.<sup>125)</sup>

이처럼 석도의 비정문제는 아주 중요하니 많은 연구자의 관심을 끌고 왔다. 한국인 연구자는 거의 석도를 독도로 보지만, 일본인 연구자는 석도를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독도;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 나이토, 오니시, 쓰카모토<sup>126)</sup>

관음도; 후나수기 리키노부(船杉力修), 시모조(제1 및 제3설)

불명; 오리, 이케우지, 시모조(제2설)

이 중에서 관음도설인데, 후나수기는 "현지조사 결과 섬들은 죽서(竹嶼), 관음도 밖에 없었으니... 석도는 관음도의 가능성이 높다.<sup>127)</sup>"고 결론을 지었다. 후나수기는 처음부터 독도를 검토 대상 밖으로 했으니 논증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 또한, 시모조는 두번이나 견해를 바꾸었는데,<sup>128)</sup> 최근에는 『한국수산지』 부속지도에 인용된 서항도(鼠項島, 관음도)의 일본어 음독 '소코토'가 石島의 한국어 음독 "석도의 발음과 흡사하다"는 이유로 석도는 관음도라고 주장했다.<sup>129)</sup>

그러나 서항도는 일본에서 '소코토'라고 음독되지 않았다. 이 일본어 호칭은 『한국수산지』 부속지도의 원본인 해도 306호(도판3)에 '鼠項島 Somoku Somu'라고 써 있으며, '소모쿠소무'라고 불렀다. 이는 「울릉도 외도」(이규원, 1882)에 그려져 있는 관음도의 옛 이름 섬목(島項)이 일본식으로 '소모쿠'라고 표현되고, 이에 섬을 뜻하는 '소무'가 부가된 것이다. 이처럼 서항도는 석도와 아무 상관이 없으며, 石島를 서항도라고 한 시모조의 주장은 건강부회라 할 수 있다.<sup>130)</sup>

126) 塚本孝, 「日本の領域確定における近代国際法の適用事例」, 『東アジア近代史』 3号, 2000, p.89.

127) 船杉力修, 「絵図・地図からみる竹島(Ⅱ)」,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最終報告書 2007, p.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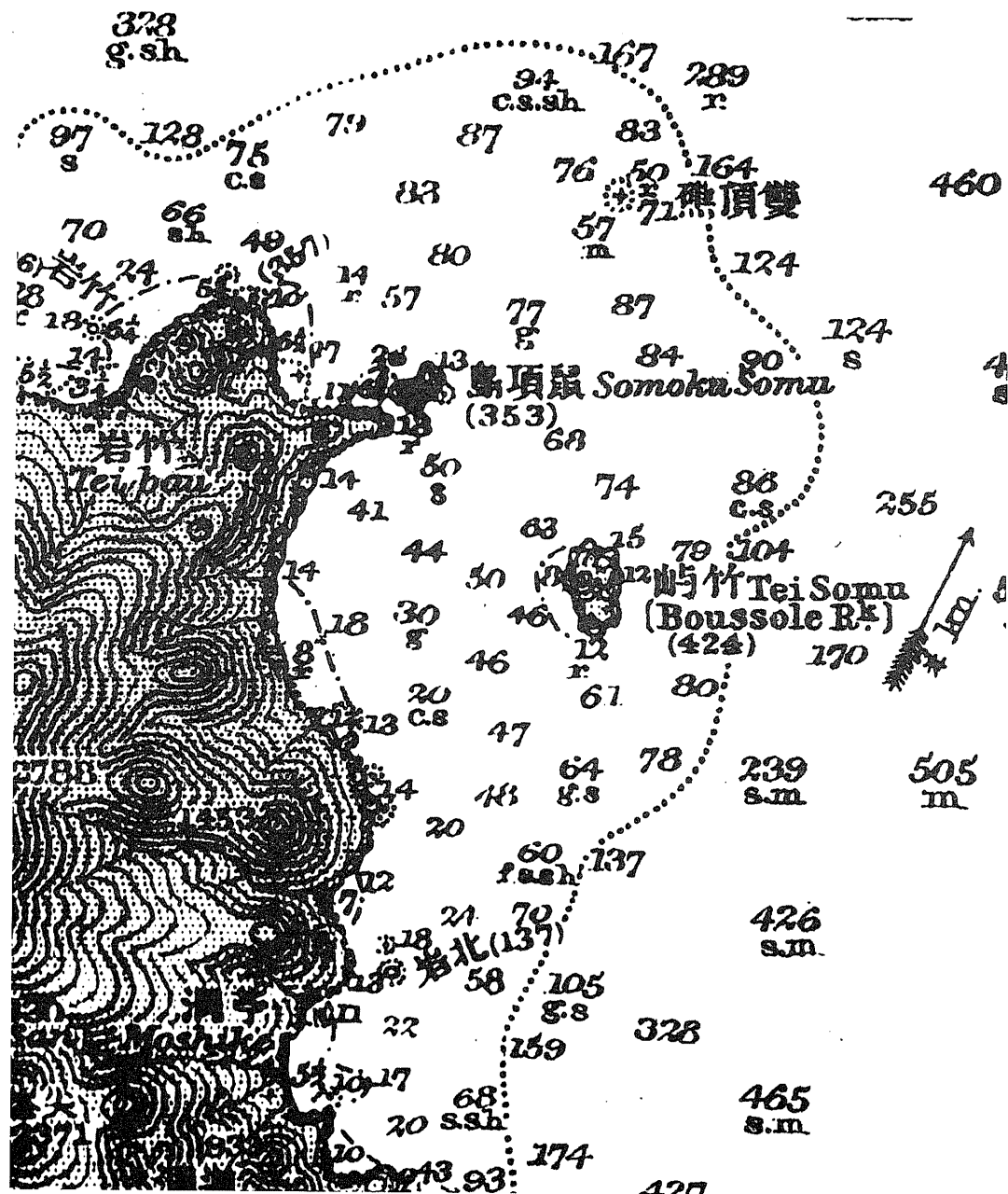
128) 박병섭, 「下條正男의 論說을 分析한다」, 『獨島研究』 4号, 2008, pp.81-83(일어), pp.111-113(한글).

129) 下條正男, 「獨島呼称考」, 『人文・自然・人間科学研究』 19号, 2008, p.30.

130) 朴炳涉, 「明治時代の鬱陵島漁業と竹島=獨島問題(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2号, 2010, pp.48-49; 박병섭, 「한말의 울릉도 어업과 독도 영유권 문제」, 『獨島研究』 8호, 2010, p.210; 박병섭,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 -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p.68.

124) 内藤正中, 「1905年の竹島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4호, 2011, p.11.

125) 下條正男, 『「竹島」その歴史と領土問題』, 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島根県会議, 2005, p.98.



< 수로부의 海圖 第306号 朝鮮東岸 竹辺灣至水原端 1909. 鼠項島(관음도)는 Somoku Somu, 竹嶼는 Tei Somu.>

또한 石島의 호칭은 시모죠가 말하는 '소쿠토'라고는 음독되지 않았다. 먼저 울릉도 주변의 섬은 혼독됐다. 島項은 앞에 쓴 것처럼 '섬목', 竹島는 '뿔세미131)' 혹은 'Tei somu'(도판3)라고 혼독됐다. 이는 '대나무 섬'을 뜻하는 '뿔세미'에 유래한다. 다음에 한국 각지에 있는 石島인데, 이는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시는 모두 혼독됐다. 이 호칭은 일본해군 수로부 『조선수로지』, 『일본수로지』 등에 의하면 '도리소무', '도루소무', '도토쿠소무' 등으로 불렸다.132) 이 중에서 '도리소무', '도루소무'는 '돌의 섬'을 뜻하는 '돌섬'에 유래한다. 그리고 '도토쿠소무'는 전라남도에 있는 石島인데, 이 섬은 『한국지명총란』에 의하면 '독섬'으로 호칭되고 있으니, '도토쿠소무'는 '독섬'에 유래한 듯하다.133) 독섬은 전라도 방언으로 '돌의 섬'을 뜻한다.

울릉도의 石島인데, 이 호칭명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1900년 이전에 어느 지방 출신자가 울릉도에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가 실마리가 된다. 그 당시에 울릉도 주민의 출신지는 1882년에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라도 출신자가 조선인 주민 140명 중의 80%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 전라도 石島 가까이 있는 삼도(거문도), 초도에서 온 자가 온 조선인 주민의 60%로 된다. 그들은 봄에 울릉도로 건너가 미역 등을 채취하고 배를 만들어 가을에 돌아가는 어민들이었다. 그런 어민들은 벌써 1787년에는 울릉도의 위치를 측량한 프랑스 라페루즈 함대에 의해 목격됐으나,134) 그들은 오래 전부터 울릉도로 왕래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 동안 그들은 때로는 모진 날씨 때문에 독도 근처까지 표류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울릉도 앞바다는 위험한 해역이었다. 부산의 일본영사관에 따르면 겨울에는 강풍 때문에 울릉도로 도항하는 배는 없었고, 겨울이 아니더라도 도

131) 外務省記録 616-10, 「明治三十五年 樞陵島狀況」, 『釜山領事館報告二』 1902.

132) 최서면 씨의 교시를 받음.

133)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란』 15권, 1984, pp.315-316;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 지식산업사, 1996, p.197.

134) 小林忠夫編訳, 『ラペルーズ世界周航記』 白水社, 1988, p.58.

항이 가능한 날은 한 달에 5-6일이며 조난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울릉도를 출발한 배는 "도중에 풍향이 바뀌어 강풍이 불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해, 때로는 에치젠(越前), 쓰루가(敦賀), 미쿠니(三國), 다지마(但馬), 단고(丹後), 사도(佐渡), 노토(能登) 등에 표착하거나 아니면 해상에서 파선해 지금까지 무사히 제대로 도항한 자가 적으며, 항해 두 번에 한번은 필시 어딘가에 표류 할 정도로 실로 위험하다고 한다.<sup>135)</sup>"고 보고될 만큼 조난이 많았다. 또한, 표류민 통계에 의하면 조선인은 1873-1888년의 11년 동안에 63건, 연 평균 6건이나 일본으로 표류했다.<sup>136)</sup> 표착지의 2/3는 쓰시마(17건)를 포함한 규슈(九州)이지만, 나머지 중의 13건은 시마네현, 7건은 야마구치현이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거문도 등에서 울릉도로 왕래한 어민도 때로는 항해 도중에 혹은 표류 중에 바위섬인 독도를 목격했을 것이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쪽으로 10km 떨어진 해상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은 이 바위섬을 그들의 방언으로 독섬이라고 호칭했다고 짐작된다.

한편, 독도에서는 울릉도를 기지로 하는 어업이 1899년에는 시작돼 있었다. 이 해에는 오이타(大分)현 어민이 울릉도 해역에서 수개월간에 걸쳐 상어잡이를 행한 것이 기록됐다.<sup>137)</sup> 또한, 한국의 어업을 잘 알고 있는 구즈우 슈수케(葛生修亮)는 1899-90년에 양코도(독도)로 상어잡이 어선이 두어 번 출어한 것이나, 1899년경에 야마구치(山口)현의 잠수기선이 양코도로 출어하고 잠수했을 때에 수많은 강치 떼에 방해받았던 것 등을 보고했다.<sup>138)</sup> 게다가 이 어선 등이 1899-90년에 '새 도서'를 발견했으며 이는 양코도임이 『지학잡지』에 보고됐다.<sup>139)</sup> 이런 어선 등은 모두 다 울릉도를 기지로 한 것이다.

그런 어민들의 활동을 울릉도 도감 배계주는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도감은 울릉도를 출항하는 일본 배로 관원 2명을 파견해 수출세로서 화물의 2/100를 공으로 징수하고 있었다.<sup>140)</sup> 따라서 도감은 울릉도에서 독도를 왕래한 어선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독도는 1899년에는 울릉도의 일본인 및 조선인에게 잘 알려진 존재였다. 그래서 독도가 칙령41호에 石島 이름으로 기재돼, 독섬으로 호칭됐던 것이다.

그러나 독섬을 한자로 石島라고 표기할 수 있어도, 石島를 독섬이라고 읽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다. 그 때문에 石島의 표기가 곧 사라져서 獨島로 표기된 것 같다. 獨島의 표기라면 쉽게 독섬이라고 읽을 수 있다. 이처럼 혼동하기가 어려운 섬 이름의 표기를 부분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 예로 섬목(島項)을 들 수 있으며 '項'자를 '목'으로 읽는 것은 조금 어렵다. 그 때문인지 부산영사관 아카쓰카 쇼스케(赤塚正助) 보고서 '울릉도조사개황'의 부속지도(1900)에서는 '項'자를 '牧'자로 변화시키고 섬목이 '島牧'으로 표기됐다. 물론 이들의 호칭은 섬목이며 변함이 없다.

한편, 독도는 적어도 광복 전후까지는 실제로 '독섬'이라고 호칭됐던 것이 아래 자료에서 알 수 있다.

1925년경 오쿠무라 료 진술서에서 '도쿠섬'<sup>141)</sup>

1947년 남선경제신문에서 '독섬(獨島)'<sup>142)</sup>

1948년 『국제보도』에서 '독섬(獨島)'<sup>143)</sup>

1948년 GHQ로의 탄원서에서 'Docksum'<sup>144)</sup>

140) 朴炳涉, 「明治時代の鬱陵島漁業と竹島=獨島問題(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2호, 2010, pp.48-49; 박병섭, 「한말의 울릉도 어업과 독도 영유권 문제」, 『獨島研究』 8호, 2010, p.210; 박병섭,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 -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p.68.

141) 外務省アジア局, 『竹島漁業の変遷』, 1953, p.37.

142) 남선경제신문, 1947.8.27; 정병준, 『독도 1947』, 돌베개, 2010, p.150.

143) 宋錫夏 「古色蒼然한 歴史的遺跡 鬱陵島를 찾아서」, 『國際報道』 제3권 1호(통권10호), 國際報道連盟, 1948년1월, p.328

144) "Request for Arrangement of Lands Between Korea and Japan," by the Patriotic Old Men's Association, Seoul, Korea (August 4, 1948). <http://dokdo-research.com/page30.html>에서 인용.

135) 外務省資料 616-10, 「明治三十五年 鬱陵島狀況」, 『釜山領事館報告書二』 1902년5월30日; 外務省, 『通商彙纂』 第234号, 1902年10月16日.

136) 池内敏,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臨川書店, 1998, p.14.

137) 朝鮮漁業協會, 「朝鮮海水業の実況(第拾回巡邏報告)」, 『大日本水産会報』 第210号, 1899.12.15, pp.9-43; 李鍾学, 『韓日漁業關係調査資料』, 史芸研究所(水原市), 2000, p.280.

138) 葛生修亮, 「韓国沿海事情」, 『黒龍』 제1권 제2호, 1901, p.13.

139) 「日本海中の一島嶼(ヤンコ)」, 『地学雑誌』 제13집 제149권, 1891年5月, p.301.

이 중에서 '도쿠송'은 '독섬'의 일본어 표현이다. 이처럼 독도의 호칭명은 독섬이었는데 광복 후의 자료에는 '돌섬'의 표기도 볼 수 있다.<sup>145)</sup>

이상과 같이 독도의 호칭은 개척 당시의 울릉도 주민에 의해 독섬으로 불렸으며, 이것이 1900년 칙령41호에 石島로 표시됐으나, 이윽고 獨島로 표기됐던 것이다. 한편, 호칭명은 적어도 광복 전후까지는 독섬이 주류이었다.

獨島의 표기는 일본에서는 『군함 니이타카(新高)행동일지』(1904), 『地学雜誌』210호(1906), 『島根縣史』(1923) 등에서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1906년 3월에 울도군수 심홍택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 이는 시마네현 '다케시마 조사단'이 울릉도를 조사했을 때에 독도가 일본영토로 났다고 알린 보고서이며, 일본인들이 호구, 인구, 토지, 생산의 다소 등을 질문한 것 등을 썼는데, 그 첫머리에 "본군 소속 독도가 외양 백 여리에 있다"고 적었다.

이 보고에 관해 제국신문(1906.5.1)은 "내부에서 훈령하기를 일인이 호구 조사는 용혹무괴한 일이어니와 (울도를, 필자 주) 점령하였다는 말은 무기한 일이니 쟁이상지하거든 일본 리사에게 교섭하여 처단하라 하였다더라."고 보도했다.<sup>146)</sup> 제국신문은 일본이 독도를 점령한 일에 대해 울도를 점령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내부가 일본의 점령은 무리하니 통감부 이사에게 이의를 제기하라고 지시한 것은 주목된다. 이 제의에 대해 통감부가 서함을 내부에 보냈는지 통감부 통신관리국장 이케다 주자부로(池田十三郎)가 "강원도 삼척군에서 분설된 울도군의 면 및 동 이름과 설치 연월을 상세히 알리라고 내부에 공함을 보냈다"고 대한매일신보(1906.7.13)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내부는 울도군의 연혁을 설명한 다음 "그 군이 소관하는 섬은 竹島·石島이며 동서가 60리, 남부가 40리, 합계 2백 리"라 회답했다고 황성신문(1906.7.13)은 전했다. 이 내용은 칙령41호부터의 인용이며, 이에 더하여 울도군의 크기를 설명한 것인데,

크기를 '합계'로 표현한 것은 이례적이다. 보통 섬 크기는 지방 백리라던가 혹은 동서, 남북, 둘레의 거리로 표현한다.<sup>147)</sup> 둘레를 쓸 때는 동서와 남북을 합친 거리의 2배는 둘레의 거리 이상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서와 남북을 합친 거리의 2배는 둘레의 거리 이하이다. 또한, 둘레와 합계라는 용어의 차이를 생각하면 내부 서함에 있는 '합계'의 숫자는 둘레의 거리로 보기 어렵다. 합계의 숫자는 동서와 남부의 거리에 뭔가를 합친 것이다. 이는 심홍택 보고서에 있는 "독도가 외양 백 여리 밖"의 '백 여리'인 것 같다. 즉 보고서의 독도를 칙령의 石島로 본 것이다.

결국 내부는 일본이 독도를 점령한 일에 대한 이의를 통감부에 제기했을 때,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근거를 칙령41호에 둔 것이다. 게다가 石島가 "외양 백 여리"에 있는 독도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울도군의 크기를 동서 60리, 남북 40리, 독도까지의 거리 백 여리 등을 합쳐서 2백 여리라 해 통감부에 연락한 듯하다.

#### 4. 우산도 문제

일본외무성은 팸플릿 「10 포인트」에서 칙령41호에 왜 우산도 이름이 사용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시했다. 마땅한 지적이며 한국 연구자들이 충분한 설명을 못하는 문제이다. 일찍이 많은 조선지도에 그려진 우산도인데, 실제로 이 섬으로 향해한 것이 문헌상으로 확인되는 것은 안용복사건이 처음이다. 그들의 활동에 인해 일본에서 마쓰시마라고 불리는 우산(자산)도는 조선영토라는 인식이 조선뿐 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정착됐다. 이는 일본 오키노의 관아가 인용복의 언동을 기록한 「무라카미가(村上家)문서」나 『이나바시(因幡誌)』 등이 증명하는 바이다. 그러나 1711년에 울릉도 수토사 박석창은 「울릉도도형」에서 '소위 우산도'에 '해장죽전(海長竹田)'이라는 글을 기입한 지도를 작

145) 「돌섬은 우리의 섬」, 『새韓民報』2-13, 1948, p.11; 鄭秉峻, 「解放後韓國의 獨島에 對する 認識と 政策 (1945-51)」,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5-2, 2008, p.22.

146) 홍정원, 「러·일의 울도군 침탈과 대한제국의 대응 연구」, 『군사』80호, 2011, p.159.

147) 유미림, 「석도는 독도다」, 『해양수산동향』256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p.10.



성했다. 이는 그가 우산도를 죽도(죽서)로 오인했음을 의미한다.<sup>148)</sup> 이 오인은 오랫동안 계속됐으며, 겨우 1882년에 이르러 이규원에 의해 우산도는 죽도(죽서)와 구별됐다. 그러나 이규원은 고종으로부터 우산 송죽도를 잘 확인하라는 명을 받았지만 죽도를 확인했을 뿐 우산도를 찾지 못했다. 또한, 1900년에 내부 시찰원 우용정이 울릉도의 실태를 조사했을 때는 울릉도를 배로 일주했는데 우산도에 관한 보고는 없었다. 그는 울도군의 신설에 관여했으니, 울도군의 관할 도서를 결정할 때 당연히 우산도를 검토했을 것이다. 그 일환으로 짐작되는데, 그즈음 울릉도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공동으로 우산도를 탐색했다. 그 결과는 실패이었음을 매일신보(1913.6.22)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우산도 탐험 중지**

경상남도 울도군 서면 김원준(金元俊)은 울도로부터 동북 방향 약 4, 50리를 거(距)하여 위치를 정한 우산도라 하는 무인도가 유하다 한즉 차(此)를 발견하면 단체로 이주할 계획인데 찬성자를 모집하고 그 비용이 매인에 대하여 금4원 거금하여 약 100원으로 범선을 고입(雇入)한 후 3명의 승조(乘組) 탐색하기로 출발할 사(事) 결정하며 찬성자가 30명에 달하였더니 우(右) 우산도는 기(其) 실재의 전설이 유하나 증(證)이 십 수년 전 동지 내선인(同地內鮮人)의 연합으로 사선(射船)을 고입하여 탐색하였으나 발견치 못할 뿐만 아니라 근년에 해(海) 향로가 빈번하여도 아즉 차를 현인(現認)하였다는 사(事)가 무(無)하고 해도에도 현(現)한 자 무(無)한즉 가령 존재하다 할지라도 차를 발견함은 용이한 사가 아니오 반히 무익한 비용을 소비함에 불과하겠다고 중지하였더라

울릉도 주민은 1913년의 십수년전, 즉 1900년경에 우산도의 탐색에 실패한 것이다. 주민은 우산도가 울릉도의 동북쪽 4, 50리 떨어진 곳에 있다는 전설을 믿어 실패한 것이다. 그런데 우산도가 울릉도 동북쪽 하루의 거리에 있다는 설은 멀리 17세기말에 안용복도 전하고 있었다.<sup>149)</sup> 결국 관민이 모두 다 우산도 탐색

148) 오상학, 「조선시대 지도에 표현된 울릉도·독도 인식의 변화」, 『문화역사지리』 18권 1호, 2006, p.87.

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산도는 존재가 불명한 전설의 섬으로 되고 말았다. 그런 섬을 행정적으로 다룰 수 없으므로 칙령41호에는 기재되지 않았을 것이다.<sup>150)</sup>

**5. 독도는 무주지가 아님을 밝힌 일본 관보**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었음은 앞에 쓴 것처럼 울릉도 어민의 어업에 의해 명백하지만 그 위에 이를 밝히는 일본의 관보 기사가 있다. 먼저 그 기사가 발행하게 된 경위를 본다.

부산의 일본영사관은 울릉도의 상황을 자주 조사해 외무성에 보고했다. 외무성은 그 내용을 취사선택해 때로는 『통상회찬(通商彙纂)』에 실어 발간했다. 따라서 『통상회찬』에 실린 영사관보고는 외무성의 공식견해이다. 영사관은 1902년에 보고서 '울릉도상황' 안에 리양코도(독도)를 포함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 섬의 정동 약 50해리에 3개의 작은 섬이 있다. 이를 '리양코도' 라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은 마쓰시마(松島)라고 칭한다. 거기에는 전복이 좀 있으므로 이 섬에서 출어하는 자가 있다. 그러나 그 섬에는 마실 물이 모자라 오랜 기간 출어할 수 없으므로 4-5일이 지나면 울릉도로 귀향한다.

영사관은 리양코도를 울릉도 부속의 섬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 보고는 거의 그대로 『통상회찬』에 전재됐다. 이처럼 한국 당국자뿐만 아니라 일본 외무성마저 리양코도를 울릉도 부속의 섬으로 본 것은 이 섬이 울릉도 주민의 어업 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인식됐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149) 『竹島紀事』, 元祿6年11月1日 ; 박병섭, 『안용복사건에 대한 검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p.17(일어), p.19(한글).

150) 朴炳涉, 「明治時代の靑島島漁業と竹島=獨島問題(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2号, 2010, p.53 ; 朴炳涉, 「한말의 울릉도 어업과 독도 영유권 문제」, 『獨島研究』 8호, 2010, p.214 ; 박병섭,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 -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p.78.

그런데 일본에서 리양코도를 한국영토로 본 예는 1905년 이전의 간행물에 흔히 볼 수 있다. 수로부는 '리양코루토암'(독도)을 『일본수로지』나 일본의 해도에 그리지 않고 『조선수로지』나 조선의 해도에 그렸다. 또 내무성 지리국이 발행한 지도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보지 않았다. 내무부는 1877년에 독도를 조선영토로 확정하고 태정관의 승인을 얻었으니 당연한 일이다. 민간에서는 구즈우 슈수케 『한해통어지침』, 이와나가 주카(岩永重華) 『최신한국실업지침』 등이 양코도(독도)를 조선영토로 간주했다. 또 쓰네야 세이후쿠(恒屋盛服) 『조선개화사』는 울릉도에 "대소 6섬이 있다. 그 중 저명한 것을 우산도(일본인은 송도라고 부른다), 죽도라고 한다"고 쓰고 우산도가 송도임을 밝혔다. 게다가 리양코도에서 강치 잡이를 하고 이 섬을 누구보다 잘 아는 어민 나카이 요자부로도(中井養三郎)도 리양코도를 조선영토로 본 것이다.

이처럼 일본에서 관민이 조선영토로 생각한 리양코도를 일본정부는 무주지라 강변해, 이 섬을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영토편입을 내각회의에서 결정했다. 그러나 독도의 영토편입은 일본 관보에 공표되지 않았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비밀로 취급됐다. 그 탓으로 부산의 일본영사관조차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 1905년 7월 영사관은 보고서 '울릉도 개황' 안에서 '랑코도'(독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도도’라고 부르는 바다 짐승은 울릉도로부터 동남쪽 약 25리 위치에 있는 랑코도에 서식하고 있고, 작년 즈음부터 울릉도민이 잡기 시작하였다. 포획 기간은 4월부터 9월에 이르는 6개월간이며, 어선 1조 당 사냥꾼 및 수부 등 10명으로 하루 평균 5마리를 잡는다고 한다. 이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30명 있으며, 어선 3조가 있다. 또한 ‘도도’ 1마리당 현재 시가는 평균 3엔 정도이다.<sup>151)</sup>

151) 外務省通商局, 『通商彙纂』第50号, 「鬱陵島現況」, 1905.9.3, pp.49-51; 官報, 「韓國鬱陵島現況」, 明治38(1905)年9月18日. 25리는 100km로 된다.

일본영사관은 랑코도, 즉 독도를 여전히 울릉도민이 어업을 하는 울릉도 부속의 섬으로 보았다. 또 그 보고를 받은 외무성도 보고서 중의 랑코도를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다케시마’로 변경하지 않고, 보고서 중의 이름 ‘랑코도’ 그대로 외무성 『통상회찬』 50호(1905)에 실었다. 외무성도 랑코도를 울릉도 부속의 섬, 즉 한국 영토로 보았다. 그뿐만 아니라, '울릉도 개황'은 그대로 관보(1905.9.18)에 게재되었다.

관보는 말할 것도 없이 일본정부의 공식 견해를 게재하는 간행물이다. 따라서 랑코도의 관보 공표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결국, 일본정부는 독도가 무주지라는 명목으로 영토 편입했지만 관보에 공표하지 않았으니, 일본정부는 영사관을 통해 랑코도(독도)를 울릉도 주민이 경제활동을 하는 울릉도 부속의 섬, 즉 한국영토로 인식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 더구나 그것이 관보에 공표됐으니, 그 인식이 일본정부의 공식 견해가 됐다. 이는 독도가 무주지가 아님을 일본정부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므로, 독도를 무주지 명목으로 영토 편입한 내각회의 결정 및 시마네현 고시40호는 그 근거를 잃는다.

## 6. 일본 주장에 대한 대응 방식

일찍이 한국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반론해 일본정부와 영유권 논쟁을 벌인 시기가 있었다. 논쟁은 1953년부터 1965년까지 12년간에 걸쳐 4번 벌어졌다. 그러나 그 당시는 한국의 독도연구도 미흡해 일본정부에게 충분한 반론을 못했다.

그 후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 덕분에 독도연구가 진전해 차차 일본정부가 숨긴 정보나 자의적인 해석이 드러났다. 그 중에서도 호리 가즈오의 연구에 의해 메이지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 밖으로 한 사실이나 일본이 무주지를 구실로 삼아 독도를 영토편입한 사실 등이 밝혀져 외무성이 주장하는 '다케시마 고유 영토설'이 의문시 됐다. 학문의 진보가 외무성을 조금씩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에 한일 양국이 독도문제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서 2007-2010년에 개최된 제2차 한일역사공동연구의 자리가 검토됐다. 이 연구회 제3분과회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독도문제를 다룰 것이 제안되고, 아울러 이를 수행할 연구 협력자로 쓰카모토 다카시가 추천됐다. 이에 대해 한국 측 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안을 거부했다고 한다.

한국정부는 예전부터 독도가 한국영토임은 의심이 없는 사실이며, 이를 둘러싼 분쟁은 존재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에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연구가 독도문제를 정식으로 연구과제로 다루고, 나아가 그 보고서에 한일 쌍방의 연구자로부터 다른 견해가 제기된다면 이는 한일 양국 정부가 공식으로 인정하는 공동연구가 독도를 둘러싼 분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sup>152)</sup>

이 주장이 옳다면 한국 측 위원은 정치적인 악영향을 걱정해 학문적인 공동연구를 포기한 셈이 된다. 2007년 당시의 독도 연구 상황을 돌이켜보면 확실히 그런 염려도 있었다.

한편, 일본외무성에 따르면 "공동연구의 성과에 관해서는 널리 주지시켜, 공통의 인식에 달한 부분에 관해서는 교과서 편집 과정에서 참고로 하도록 각각 교과서 제도의 틀 안에서 노력할 것에 관해<sup>153)</sup>" 한일 양국에서 합의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공동연구의 자리는 일본 교과서의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을 수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이것이 가능하면 독도문제의 해결에 한걸음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독도 소송을 염두에 두고

'국제분쟁에 대응할 국제 소송력 강화'를 도모할 방침인데, 마찬가지로 한일역사공동연구를 염두에 두고, 만약 아직 준비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준비만은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준비는 수동적인 것이며, 당장 독도문제의 해결에는 아무 기여를 하지 않는다.

독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주장의 상호 이해가 필요하지만, 일본의 서적이거나 논문은 많이 한국에 소개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서적이거나 논문은 요새 거의 소개되지 않게 됐다. 그 대신 들리는 것은 상대국에 대한 비난, 항의의 소리뿐이다. 이들은 상대방을 더욱 경색시킬 뿐 상호이해와는 거리가 멀다. 이제 독도문제 해결에 한걸음이라도 다가가지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기대된다.

152) 木村幹, 「『日韓歴史共同研究』をどうするか」, 『現代韓国朝鮮研究』10호, 2010, p.62.

153) 小泉総理訪韓の概要 (6月20日・21日、於：ソウル).

[http://www.mofa.go.jp/mofaj/kaidan/s\\_koi/korea\\_05/gaiyo.html](http://www.mofa.go.jp/mofaj/kaidan/s_koi/korea_05/gaiyo.html)